

'91년도 주요업무계획

- 동력자원부 -

1. 에너지의 안정공급

(1) 원유의 안정확보시책 강화

- 장기계약비중 증대 : '90평균 56%→'91평균 65% 이상
- 中東지역의존도의 감축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 도입국을 다원화 : 중남미, 소련등으로 확대

(2) 국내외자원개발의 적극 추진

- 석유사업기금의 유가환충기능을 축소하고 에너지관련 사업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추진
- 소련 시베리아자원개발의 적극진출 추진
 - 단기간내 가시화될 개발사업 추가발굴을 위해 연초 제2차 자원조사단 파견
 - 韓蘇자원협력위원회 설치
- 동남아, 중동, 미주지역의 자원개발 적극 추진
- 태평양 심해저자원개발 참여
- 동해 제6-1광구 평가완료등 지속적인 국내대륙붕 개발
- 국내 부존자원인 석탄생산 지원 및 합리화 추진
 - 근로자부족과 부존여건상의 기계화환계를 감안, 별도의 인력 수급대책 검토

(3) 에너지산업의 자율성 제고

- 에너지부문에서의 UR협상에 대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및 유통부문의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장기안정공급기반을 구축

2.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내실화

◇ '90. 8월부터 시행중인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음사항에 중점

(1)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 요금의 누진을 확대 및 하계휴가료금제등 전기요금제도의 조정
- 국제원유가 동향에 따라 국내유가 적기 조정

(2)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에너지효율 확대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 기능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진단 실시('91 : 250업체)
-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 또는 공장건설시 에너지향평가제도 도입 및 에너지효율향상 목표설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확대 및 투자세액공제 강화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의 지원확대

(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

- 수도권 5개 신도시등에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
-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확대 : 현 4개→'91년중 8개공단

•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4)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 확산, 정착

3. 전력수급관리 강화

(1) '91최대전력수요는 2,400千KW 증가 전망이나 ('90年 2,194千 KW), 시설용량은 118千KW 증가에 그쳐 전력수급 불안 예상

(2) 휴지발전소의 운전재개등 공급능력 확대와 아울러 소비억제측면에서의 강력한 보완시책 추진

- 장기휴지발전소 운전 재개(8기 1,510千KW)
- 가정용요금의 누진단계 및 차등폭 확대, 업무용 및

산업용요금의 계절별 차등폭 확대등 가격에 의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 냉방용 전력수요의 절감을 위한 세제보완 검토 ('90 전력수요중 냉방용비중 21.6%)

(3) 중장기 전력수급안정 추진

- 당초건설계획 12기(2,657千KW)외에 일도 2호기등 12기(3,086千KW)를 '93년까지 추가건설
- '91年 1/4분기중 장기전력수요 재점검, 발전소유지 및 투자계획등 장기전력수급계획 보완

(4) 이상의 조치를 통해 공급예비율을 '90수준으로 유지

		'90	'91	'93
-공급예비율 (%)	-당 초	8.3	3.3	2.7
	-대책후	8.3	7.6	10.5

석유안경

辛未年에의 소망



돌고래 광구에서 검은노다지가 펑펑...